

요코즈나(横綱)와 선수의 인생

스모 선수들은 몸집을 불리기 위해 과도한 식사와 과격한 훈련과 시합으로 선수로서의 생명은 그다지 길지 않지만 스모 선수들의 최고자리인 요코즈나(横綱)가 되면 부와 명예를 함께 얻게 됨

□ 요코즈나(横綱)

- 일본스모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스모 시합을 혼바쇼(本場所)라고 하는데 매년 6차례 전국을 순회하며 열림
 - 가장 먼저 1월에 하츠바쇼(初場所)가 도쿄(東京) 국기원(国技館)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3월에 오사카(大阪)에서 하루바쇼(春場所), 5월에 도쿄(東京)에서 나츠바쇼(夏場所), 7월에 나고야(名古屋)에서 나고야바쇼(名古屋場所), 9월에 도쿄(東京)에서 아키바쇼(秋場所), 11월에 후쿠오카(福岡)에서 큐슈바쇼(九州場所)가 차례로 개최됨
- 선수들은 임의로 동과 서로 나뉘고 15일간의 열전에 돌입하는데 동서간의 팀 별 대항이 아니라 개인전으로 함
 - 매일 다른 선수와 경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에게 우승컵이 돌아감
 - 우리나라 씨름은 권투와 같이 체중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각 체급별 우승자를 가려내지만, 스모는 모든 선수가 체중과 등급에 관계없이 대전함

- 스모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요코즈나(横綱)로 과거 300년이 넘는 스모 역사에서 요코즈나가 된 선수는 겨우 6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올라가기 어려운 자리임
- 그러나 한번 요코즈나가 되면 성적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강등되는 경우는 없음
- 일반적으로 요코즈나 바로 아래 등급인 오제키(大関)시절에 혼바쇼에서 연이어 우승하면 요코즈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
- 그러나 시합 성적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격 여부는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후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스모의 실력과 더불어 요코즈나가 갖추어야 할 덕목도 함께 심사됨
- 매번 시합이 끝나면 각 선수들의 등급이 경기 결과에 따라 조정되어 다음 경기에 반영되는데 이때 강등되고 승격되어 다시 조정되어 발표되는 순위표를 반즈케(番付)라고 함

□ 대표적인 스모 선수

- 세계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요코즈나 중에서 대중적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리키시(力士, 스모 선수)를 꼽으라면 와카노하나(若乃花)와 다카노하나(貴乃花) 형제를 꼽을 수 있음
- 두 형제가 모두 스모의 챔피언이 되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으나 대중적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이 두 리키시의 아버지였던 후타고야마 오야가타(二子山親方)가 있었기 때문임
- 후타고야마 오야가타는 오야카타(親方, 소속선수들의 훈련과 생활을 책임지는 도장의 사범)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려서부터 엄격한 지도를 통해 두 아들을 결국에는 요코즈나로 키워냄
- 그는 요코즈나는 되지 못했지만 그 바로 아래 등급인 오제키까

지 올랐던 리키시로 본인이 이루지 못했던 최고의 자리에 두 아들을 올려놓고 2005년 5월 암으로 세상을 떠남

- 스모협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국민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고 함

□ 일본 스모 선수의 일생

- 현재 일본스모협회에 등록된 리키시는 약 900여명이 있음
 - 선수들은 각자 자신이 속해있는 헤야(部屋, 스모선수를 양성하는 합숙소)에서 숙식하며 요코즈나의 꿈을 키움
 - 그러나 부와 명예를 같이 거머쥌 수 있는 요코즈나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은데, 엄격한 관리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계질서가 명확한 헤야에서의 생활을 견디어내는 것은 고된 훈련을 받는 것 이상으로 어려움
 - 각각의 헤야에 마련되어 있는 연습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훈련을 케이코(稽古)라고 하는데 나무기둥을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때린다든지 양 발을 높이 올리는 연속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함
- 실제 프로 스모선수로 불리며 세키토리(関取)라는 명칭을 얻고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될 때까지의 기간은 빨라야 5년임
 - 전체 선수들 중에서 불과 10%에도 못 미치는 선수들이 세키토리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관문이 좁음
 - 몸집을 불리기 위한 과도한 식사와 과격한 훈련과 시합으로 선수로서의 생명은 그다지 길지 않음
 - 적지 않은 선수들이 부상과 질병으로 30대가 되기 전에 은퇴함